

	성 명		충남도당
2016년 2월 10일(수)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 대변인 : 김정섭(010-6323-3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010-2390-6824			

새누리당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

새누리당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령에서 있었던 집권여당 현역의원과 지자체 단체장의 관권선거 시비에 이어 공주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부여군 외산면 이장단 회의가 끝난 뒤 식사자리에서 인사를 해 선관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안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번에 고발이 된 박모 후보는 선거행정 주무부처의 차관을 지냈으면 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규범의식이 낮은 듯해 우려스럽다.

선관위가 나름대로 사실 조사를 해 참석한 750명 중 550명이나 비당원이라고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니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허위사실’, ‘주먹구구식 조사’, ‘부풀리기’ 등의 표현으로 변명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은 집권 여당의 헐박에 지나지 않는다.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한 검찰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불법과 반칙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